



LG전자가 4일부터 9일까지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국제가전전시회(IFA) 2015'에서 HDR 적용 올레드TV라인업을 공개한다. HDR은 어두운 부분과 밝은 부분을 세밀하게 분석해 어두운 곳은 더욱 어둡게, 밝은 곳은 더욱 밝게 표현하는 기술이다. 사진제공 LG전자

오너드라이버 꿈 꾀다면...지금이 적기

9월 국산차 파격 프로모션

업체, 개별소비세 인하에 각종 사은행사 현대기아차, 대규모 할인에 귀성비 지원
세보레는 차종별 최대 280만원 현금할인

국산차 업체들이 정부의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파격적인 프로모션을 진행 중이다. 개소세 인하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혜택을 추가했다. 특히 현대기아차는 이례적인 대규모 사은행사로 주목을 받고 있다. 소비자들에겐 자동차 구입의 최적기인 셈이다.

●현대기아차 대규모 판촉 행사

국산차의 9월 프로모션 중 압도적인 규모를 자랑하는 것은 현대기아차다. 현대기아차가 이처럼 대규모로 고객 사은행사를 벌이는 것은 드문 일이다. 불륜 모델인 신형 아반떼 등의 신차 출시를 앞두고 판촉 행사에서 경쟁사를 압도해 내수 판매를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 숨어있다.

대표 중형 세단인 쏘나타 구형 구매 시 100만원 할인 또는 50만원에 2.9% 저금리를 지원한다. 신형 모델은 40만원 할인 혹은 10만원 할인에 2.9% 저금리를 적용해준다. 세이브 오토 30만원도 지급된다.

싼타페 구형 구매 시에는 혜택이 더 크다. 150만원을 할인해주거나 100만원 할인에 2.9% 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세이브오토 30만 포인드도 제공한다. 맥스크루즈는 150만원, 베라크루즈는 100만원 할인에 정비 서비스까지 제공한다.

아반떼는 2015년형 구입 시 7% 할인을 해주거나 30만원 할인에 선수율 20%, 36개월 무이자 또는 1년 무이자 거치에 36개월 4.8% 할부를 선택할 수 있다.

기아차는 추석 귀성비까지 지급한다. 더 뉴 모닝은 9월 구매 고객에게 한가위 귀성비 30만원에 56만원 할인 또는 '1-2-3 초저금리'에 26만원을 지급하는 파격적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1-2-3 초저금리'는 납부 기간에 따라 금리를 선택할 수 있는 최저 1.9% 금리 구매 프로그램이다. K3는 한가위 귀성비 30만원에

100만원 할인 또는 '1-2-3 초저금리'에 50만원 할인이 제공된다. K5 구매 고객에게도 한가위 귀성비 10만원이 지원된다. 신차 출시를 앞둔 더 뉴 스포티지R은 150만원 할인 또는 '1-2-3 초저금리'에 80만원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그 외 국산차 혜택도 풍성

세보레는 차종별 최대 280만원의 현금 할인은 물론 총 6개차종에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한다. 개소세 인하분까지 반영하면 캡티바 344만원, 말리부 디젤 304만원, 크루즈 디젤 261만원, 2015년형 올란도 디젤 231만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르노삼성자동차는 SM5와 QM3 구매시 벨류박스를 이용할 경우 SM5 최대 53만원(RE), QM3 최대 47만원(RE 시그니처)을 할인받을 수 있다. 또 파격적인 0.5% 할부, 신차 교환 보장 프로그램, 3년간 운전자 특별 보험 혜택도 제공한다.

쌍용자동차는 코란도 C LET 2.2 및 렉스턴 W를 일시불 및 정상할부, 가족사랑 할부(선수율 0%, 5.7%저리 60개월 할부)로 구입하면 개별소비세 인하에 따른 특별혜택으로 각각 20만원과 70만원을 할인해준다. 코란도 투리스모는 일시불 및 정상할부, 가족사랑할부(선수율 0%, 5.7%저리 60개월 할부)로 구매하면 한가위 귀성비 70만원을 제공한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현대차가 정부의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파격적인 프로모션을 진행 중이다. 인기 SUV인 싼타페 구형 모델의 경우 150만원을 할인해주거나 100만원 할인에 2.9% 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사진제공 현대자동차

유통업체, 광고신도시 상권 주목...젊은 부부 잡아라

롯데아울렛 광고점 개장...30·40대 겨냥
이마트는 '편집숍 형태 체험형 매장' 오픈

이번엔 경기도 수원 광고신도시다. 유통업체들이 일산과 판교 등 수도권 외곽에 신규매장을 오픈하거나 기존매장을 새롭게 꾸미는 등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신세계와 롯데가 이번엔 새로운 상권으로 주목받고 있는 광고에서 경쟁 체제를 맞췄다. 특히 신도시 특성상 어린 자녀를 둔 30~40대 젊은 부부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 매장을 꾸렸다.

먼저 롯데백화점은 4일 광고신도시에 도심형 아웃렛 '롯데아울렛 광고점'을 개장한다. 지하 1층~지상 3층으로, 영업면적은 2만8959㎡다. 입점 브랜드 수는 260여개. 소비자들은 '타미힐피거'와 '나이키' 등 유명 브랜드 상품을 상시 30~5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날 수 있다. 광고점의 특징은 젊은 가족단위 고객을 위한 패



롯데아울렛 광고점

밀리형 매장으로 구성했다는 점이다. 식품료 매장과 생활용품 매장의 비중을 기존 도심형 아울렛에 비해 3배 이상 늘렸다. 또 미취학 아동을 위해 아동체험공간(타요 키즈 파크)과 어린이 영어카페(부빌리), 완구 및 키덜트 숍(엘카·센토이) 등을 갖췄다. 아울렛 4층에는 롯데시네마가 개장한다. 한편 롯데마트도 4월 광고점을 열고, 아기용품 전문 매장인 '베이비저러스'를 갖추는 등 고객 맞춤형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이마트는 3일 새로운 편집숍 형태의 체험형 점포 '이마트 광고점'을 오픈했다. 지상 4층 건물로 1층과 2층에 걸친 매장면적은 총 1만 5868㎡다. 이마트 광고점 또한 30~40대 가족을 타깃으로 매장을 꾸렸다. 화장품 편집숍 '더뷰티'와 유아용품 편집숍 '베이비존'이 대표적이다. 총 727㎡로 일반적인 점포 화장품 코너의 2배에 달하는 더 뷰티는 아모레와 LG생활건강, 엔프라니와 같은 대형 화장품 브랜드부터 미샤, 더 페이스샵, 네이처리퍼블릭 등 중저가 브랜드까지 총 13개 브랜드를 모아 대형마트 최초로 체험형 매장으로 구성했다. 출산 전 임신부 용품부터 4세까지의 유아용품을 원스톱으로 구매할 수 있는 '베이비존'도 광고점의 특징이다. 유모차와 카시트, 완구서적과 유아용품을 비롯해 기존의 점포에는 따로 진열돼 있던 분유와 기저귀, 세제, 생생아 의류까지 아이는 물론 임신부를 위한 용품을 한데 모아 쇼핑 편의성을 극대화했다.

김영근 기자 dionys@donga.com

대형식품업체, 햄·소시지 함량 표기 '불량'

서울YMCA 조사결과 표기율 29%
동원F&B, 8개 제품 모두 표기 안해

햄·소시지는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찾는 식품 중 하나다. 하지만 조사결과 대부분의 업체에서 고기함량(육함량)을 표기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특히 상위 5개 업체 중 동원F&B는 시판 중인 8개 제품 모두 육함량 표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8월 시장점유율 상위 5개 업체(시장점유율 합계 약 70%·농협목우촌, 동원, 롯데푸드, 사조대림, CJ제일제당)의 모든 제품(61개)에 대해 '육함량 표기' 여부를 모니터링했다. 그 결과 햄·소시지 51개 제품 중 15개(29.4%)만이 육함량을 제품에 표기하고 있었다.

브랜드별로 보면 동원F&B는 8개 제품 중 단 한 곳도 표기가 없었다(0%). 사조대림은 7개 제품 중 1개(14.3%), CJ제일제당은 15개 제품 중 4개 제품(26.7%), 농협목우촌은 8개 제품 중 3개(37.5%), 롯데푸드는 13개 제품 중 7개(53.8%)에 표기가 있었다.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원재료를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함량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 외의 경우 함량 표시를 하지 않아도 법에는 저촉되지 않는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찾고 있는 햄·소시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행위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서울YMCA는 "소비자가 육가공 제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련 규정을 하루빨리 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원성열 기자

단통법 위반 LGU+ 21억2000만원 과징금

요금할인제 가입 의도적 거부·회피
SKT는 내달 1~7일까지 영업정지

LG유플러스가 소비자들에게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도를 제대로 안내하지 않아 과징금을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위반으로 LG유플러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21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최근 현장조사를 벌인 결과 LG유플러스가 요금할인제 가입을 의도적으로 거부·회피했다고 판단했다. 요금할인제도는

보조금을 받지 않고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면 그에 상응하는 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LG유플러스는 "방통위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한다. 향후 이용자 불편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회의에서 SK텔레콤의 영업정지 기간을 10월1일부터 7일까지로 정했다. 해당 기간동안 SK텔레콤은 가입자를 신규 모집(번호이동 포함)할 수 없고, 기기변경만 가능하다. SK텔레콤은 3월 과도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단통법 위반으로 방통위로부터 영업정지 7일과 과징금 235억원을 부과 받은 바 있다.

김영근 기자

기름값 인상 담합 정유 3사 벌금형 확정

기름값 인상을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정유사 3곳에 대한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GS칼텍스(주), 현대오일뱅크(주), SK(주)에 각각 벌금 1억원과 7000만원, 1억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공동행위에 대한 합의, 실행행위, 경쟁 제한성을 넘쳐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3사의 '공동행위'는 2004년 4월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들 정유사의 담당자들은 '정

유사간 공익모임'을 통해 대리점, 주유소에서 공급하는 정유사의 가격을 SK에서 고시하는 공장도 가격을 기준으로 리터당 50원(1도량당 1만원) 할인해 공급하는 방법으로 인상, 유지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7년 이런 사실을 적발하고 정유사 3사에 대해 과징금 526억원을 물리고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3사를 약식재판에 넘겼으나 3사는 오히려 억울하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2013년 1심은 3사의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형에 처했으며, 2심은 "일시적 합의 이탈현상으로 합의가 파기됐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3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

노스페이스 '레이니어 트랜치코트' 출시

데일리 아웃도어라인 노스페이스 화이트라벨이 가을 시즌을 맞아 레이니어 트랜치코트(사진)를 출시했다. 노스페이스에서 독자 개발한 하이엔트 소재를 사용해 방수·발수 및 투습 기능이 우수하다. 가을철 번덕스러운 날씨에도 쾌적하고 편안하게 입을 수 있다. 디자인이 심플해 아웃도어에서는 물론 출퇴근 시 오피스룩으로도 손색이 없다. 심플하면서도 세련된 느낌의 남성용 제품은 탈·부착이 가능한 후드가 적용돼 클래식한 세미캐주얼룩부터 스트리트룩까지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다. 여성용 제품은 클래식한 트랜치코트 디자인, 탈·부착이 가능한 케이프형 후드와 허리 조임 기능이 특징이다. 여성스러운 라인을 강조하면서 세련된 연출이 가능하다. 남성용은 베이지와 네이비 두 가지, 여성용은 베이지, 네이비, 버건디 세 가지로 출시됐다. 가격은 27만8000원.



쌍용차, 콘셉트카 'XLV-Air' 이미지 공개

쌍용자동차 티볼리 롱보디의 양산형 콘셉트카 XLV-Air(사진)의 렌더링 이미지를 3일 공개했다. 티볼리 롱보디 버전은 기존 티볼리를 베이스로 전장조장과 전고를 확대함으로써 동급 최대의 적재공간을 제공함으로써 활용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쌍용차는 15일 프레스데이를 시작으로 27일까지 열리는 '2015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서 콘셉트카 XL-Air를 세계 최초로 공개한다.

재규어 프리미엄 스포츠 세단 XE 국내 출시

재규어코리아는 프리미엄 스포츠 세단 재규어 XE(사진)의 국내 판매를 4월부터 시작한다. 재규어 XE는 탁월한 승차감, 뛰어난 주행 다이내믹스, 재규어 DNA를 간직한 디자인 등 매력 을 고루 갖춘 프리미엄 스포츠 세단이다. 국내 출시 모델은 총 5가지다. XE 라인업은 2.0리터 인제니움 디젤 엔진을 탑재한 'XE 프레스티지', 'XE R-Sport', 'XE 포트폴리오'와 2.0리터 가솔린 터보차저 엔진의 'XE 프레스티지' 및 3.0리터 V6 슈퍼차저 가솔린 엔진의 고성능 모델인 'XE S'로 구성된다. 부가세 포함 4710만~6820만원.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